

## 래드포드의 퍼즐과 비인지주의 감정 이론의 전망\*

최 근 흥\*\*

### [초 록]

이 논문에서 나는 허구에 대한 감정 반응과 관련된 래드포드의 퍼즐에서 래드포드가 제기한 진정한 물음이 인과적 물음이라는 주장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 퍼즐에 대해 감정 비인지주의의 접근이 갖는 전망을 탐색한다. 김세화는 래드포드가 제기한 물음을 개념적인 것으로 해석한 월튼의 해결책이 만족스럽지 않다고 지적하고, 래드포드의 진정한 물음은 인과적 물음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김세화는 감정에 대한 인지주의를 수정한 이론을 제안하면서, 이것이 인과적 물음에 대한 답변이 개념적 물음에 대한 답변을 뒷받침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한다. 나는 래드포드가 인과적 물음을 제기하고 있으며 그것이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는 김세화의 통찰에 동의하지만, 월튼

\* 이 논문의 초고에 대해 건설적인 비판과 함께 섬세한 견해를 제시해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면의 한계 때문에 여기에 미처 담지 못한 부분은 후속 연구를 통해 더욱 발전시켜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 서울대학교 미학과 강사

주제어: 허구, 감정, 인지주의, 비인지주의, 지향성, 체화된 평가  
Fiction, Emotion, Cognitivism, Non-Cognitivism, Intentionality, Embodied Appraisal

에 대한 김세화의 반론은 ‘인과적 물음’이라는 표현을 애매하게 사용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더 나아가, 나는 인과적 물음과 개념적 물음이 김세화의 주장만큼 긴밀한 관계를 맺는다고 여기지 않으며, 따라서 김세화의 수정된 제안이 그러한 관계를 보여주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나는 래드포드의 퍼즐에 대해 감정 비인지주의의 접근을 차단하는 근거로 인지주의자들이 제시하는 감정의 개별화, 합리성, 지향성 등의 문제는 최근의 발전된 비인지주의의 이론을 고려할 때 더 이상 설득력이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특히, 나는 프린츠의 체화된 평가 이론을 그 사례로 소개하고, 비인지주의의 이론을 통해 허구에 대한 감정 반응을 이해하려는 시도가 가지는 전망을 검토한다.

## 1. 서론

콜린 래드포드(Colin Radford)가 그의 1975년 논문, “How Can We Be Moved by the Fate of Anna Karenina?”에서 제기한 물음은 ‘래드포드의 퍼즐’로 잘 알려져 있다.<sup>1)</sup> 이 퍼즐은 허구와 감정에 관한 다음의 세 진술들이 직관적으로 각각 그럴듯하지만 함께 주장될 경우 일관적일 수 없게 되는 상황을 보여준다. 그 세 진술들이란 다음과 같다.

### <래드포드의 퍼즐>

- (1) 우리는 감정의 대상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는 경우에만 그것에 대해 감정을 느낀다.
- (2) 우리는 허구의 인물이나 상황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지 않는다.
- (3) 우리는 허구의 인물이나 상황에 대해 감정을 느낀다.

---

1) Colin Radford (1975), “How Can We Be Moved by the Fate of Anna Karenina?” *Proceedings of the Aristotelian Society, Supplementary Volumes* 49, pp. 67-80.

어쩌면 우리는 세 진술 모두를 받아들이고 허구에 대한 감정 반응이 비합리적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이들 중 어느 한 진술을 부정함으로써 또는 최소한 그것을 나머지 두 진술과의 일관성을 갖추는 방식으로 해석/수정함으로써 주어진 퍼즐을 해결하려 시도할 수 있다.

이러한 방향에서 레드포드의 퍼즐을 다루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은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그런데 이 시도들은 공통적으로 허구와 감정에 관한 다음의 두 가지 물음에 기초하고 있다. 하나는 ‘허구의 인물이나 상황에 대해 우리가 느끼는 것이 진정한 감정(genuine emotion)일 수 있는가?’라는 물음이다. 다른 하나는 ‘허구는 어쨌든 글자 그대로의 의미에서 거짓인데, 그러한 허구의 인물이나 상황에 대한 우리의 감정 반응이 과연 합리적인(rational)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가?’이다. 그런데 김세화는 레드포드의 퍼즐에서 그가 제기하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앞의 두 물음에 있다기보다는 ‘우리가 허구를 감상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러한 심리적-생리적 반응들을 가지게 되는 것인가? 허구가 어떻게 우리의 심리적-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가?’라는 물음을 던진다는 데 있다고 주장한다.<sup>2)</sup>

김세화가 붙인 이름을 따라서, 앞의 두 물음들을 각각 ‘개념적 물음’과 ‘규범적 물음’이라고 부르고, 마지막 물음을 ‘인과적 물음’이라고 하자. 우선 나는 레드포드의 퍼즐이 드러내는 핵심적 의의가 인과적 물음에 있다는 김세화의 성찰에 동의한다. 하지만 이러한 동감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성찰이 김세화 논문의 목표이자 제목인 ‘감정에 대한 인지주의와 그에 대한 수정’을 위해 활용되는 방식에는 적지 않은 문제점들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문제 인식에 기초해 이 글에서 나는 다음의 사항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월튼(Walton)은 레드포드의 퍼즐을 개념적 물음으로 이해하고 해결책을 제안한다. 그런데 김세화는 이것이 인과적 물음의

2) 김세화(2005), 「감정에 대한 인지주의와 그에 대한 수정」, 『철학』 84, 한국철학회, pp. 157-172.

중요성을 간과한 불충분한 해법이라고 비판한다. 그러나 나는 김세화의 비판이 ‘인과적 물음’이라는 표현을 애매하게 사용한 데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나는 월튼이 인과적 물음에 대해 김세화의 대답과는 다른 종류의 대답을 나름대로 했다고 평가한다. 다음으로, 김세화는 인과적 물음에 대한 대답이 개념적 물음에 대한 대답을 뒷받침해 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더 나아가 자신이 제안한 수정된 인지주의가 이러한 관계를 보여준다고 주장한다. 이는 감정 반응의 원인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것들을 탐색함으로써 ‘감정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보다 적절한 답변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에 기인한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인과적 물음과 개념적 물음의 관계가 김세화가 주장하는 정도만큼 밀접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말하자면, 감정 반응의 원인이 감정의 본성을 구성하는 요소를 뒷받침할 만큼 긴밀한 설명을 제공하진 않는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마지막으로, 김세화를 비롯한 인지주의 감정 이론가들은 허구에 대한 감정 반응을 다룰 때 비인지주의 접근을 배제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윌리엄 제임스(William James)의 ‘신체적 느낌 이론(somatic feeling theory)’으로 대표되는 비인지주의에 비해 인지주의가 보다 설득력 있는 이론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특히 인지주의는 감정의 지향성(intentionality), 개별화(individuation), 그리고 합리성(rationality) 등을 설명하는 데 있어 비인지주의보다 배타적 우월성을 가진다고 간주된다. 그러나 최근의 비인지주의 감정 이론의 발전을 고려할 때 이러한 설명력의 우월성은 더 이상 유지되기 힘들 것 처럼 보인다. 나는 이 사실을 보여주는 비인지주의의 사례로서 프린츠(Prinz)의 ‘체화된 평가 이론(embodied appraisal theory)’을 소개하고 활용할 것이다. 이제 만약 이러한 비판들이 타당한 것으로 밝혀진다면, 래드포드의 퍼즐이 인과적 물음을 던진다는 데 그 중요성이 있다는 사실을 수용하는 것과는 별개로, 그 물음이 개념적 물음과 맺는 관계는 보이는 것보다 긴밀하지 않다. 한편 허구에 대한 감정 반응을 다룰 때 비인지주의 감정 이론을 배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는 비인지주의 감정 이

론을 활용하여 허구에 대한 감정 반응을 이해하려는 시도가 갖는 전망을 검토할 기회를 제공한다. 이것의 일환으로서 나는 프린츠의 비인지주의 감정 이론에 기초했을 경우 허구에 대한 감정 반응이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지를 분석하고, 그러한 분석의 의의를 검토하는 것으로 이 글을 마무리할 것이다.

## 2. 래드포드의 퍼즐이 제기하는 인과적 물음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래드포드의 퍼즐이 왜 개념적 물음이 아닌 인과적 물음을 제기하고 있는지에 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김세화는 무엇보다 래드포드의 물음을 개념적인 것으로 해석한 월튼의 해결책이 만족스럽지 않음을 지적한다. 김세화의 지적에 따르면 월튼의 해결책이 갖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 월튼은 단지 래드포드의 퍼즐을 해결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래드포드의 퍼즐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 즉 인과적 물음을 제기하고 있다는 바로 그 사실이 퍼즐의 핵심적 의의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다.<sup>3)</sup>

### 2.1. 월튼의 해결책: 래드포드의 퍼즐과 개념적 물음

월튼이 래드포드의 퍼즐을 논의하기 위해 제시하는 사례는 다음과 같다.

찰스(Charles)는 끈끈한 녹색 괴물에 대한 공포 영화를 보고 있다. 그는 그 괴물이 땅을 천천히 그러나 잔인하게 뒤덮어가면서 그 앞에 있는 모든 것을 파괴하는 것을 보며 자리에서 움츠린다. 곧 물결치는 듯한 그 녹색 괴물의 몸체에서 끈적끈적한 머리가 솟아오르고

3) 김세화(2005), p. 159.

두 개의 까만 눈이 카메라를 응시한다. 괴물은 속도를 내며 관객을 향해 돌진하기 시작한다. 찰스는 비명 소리를 내며 의자를 꼭 붙잡는다. 영화가 끝난 후, 그는 여전히 떨리는 목소리로 괴물에 대해 “무서웠었다”고 고백한다.<sup>4)</sup>

월튼은 찰스의 “무서웠었다”는 고백에도 불구하고 찰스가 느낀 무서움이 진정한 감정으로서의 공포는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는 ‘찰스가 허구의 대상인 녹색 괴물에 대해 느낀 무서움이 진정한 감정(공포)인가?’라는 개념적 물음에 대한 답변이다. 그러므로 <래드포드의 퍼즐>에서 (3)을 부정하는 것이 월튼의 해결책이다. 월튼이 이러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감정을 유발하는 데 필요한 믿음들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다.<sup>5)</sup> 래드포드의 퍼즐에서 월튼이 수용하는 두 진술들은 (1)과 (2)이다. 영화 속 녹색 괴물은 허구의 대상이므로 찰스는 그 괴물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지 않는다. 또한 감정의 대상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는 경우에만 그것에 대해 감정을 느낄 것이므로, 찰스는 그 녹색 괴물에 대해 감정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찰스가 “무서웠었다”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느낌은 진정한 공포가 아니다. 왜냐하면 무언가를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것에 의해 위협을 받고 있다는 믿음을 필요로 하지만, 허구의 대상인 녹색 괴물이 존재한다고 믿지 않는 찰스는 이처럼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녹색 괴물에 의해 자신이 위협을 받는다고 믿지 않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한편 월튼이 제시하는 다른 하나의 이유는 “무서웠었다”는 찰스의 느낌이 동기부여의 힘을 결여하고 있다는 것이다.<sup>6)</sup> 찰스가 진정한 공포를 느꼈더라면, 그 공포에

4) Kendall L. Walton (1990), *Mimesis as Make-Believe: On the Foundations of the Representational Art*,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p. 196. 김세화(2002), 「허구에 대한 감정과 래드포드의 퍼즐」, 『철학연구』 57, 철학연구회, p. 308에서 재인용.

5) Walton (1990), p. 197.

6) Walton (1990), pp. 201-202.

전형적인 의도적 행위를 했었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찰스가 느낀 무서움이 공포 감정이라면 그것은 찰스가 위험을 회피하려는 행위를 하게끔 압력을 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찰스는 영화 속 녹색 괴물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어떠한 의도적 행위도 하지 않는다. 이렇게 공포에 고유한 동기부여의 힘이 무력화된 채 느낀 “무서움”은 전혀 공포가 아니라는 것이 월튼의 생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튼은 찰스의 “무서웠었다”는 고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찰스의 상태가 현실 세계에서 임박한 재난에 대해 두려워하는 사람의 상태와 몇몇 분명한 지점들에서 유사하다는 것은 인정된다. 찰스의 근육은 긴장되어 있고, 그는 의자를 꼭 붙들고 있으며, 그의 맥박은 빨라지고, 그에게는 아드레날린이 흐르고 있다. 이러한 심리적-생리적 상태를 **유사-공포(quasi-fear)**라고 부른다. 하지만 이것 단독으로는 진정한 공포를 구성하지 못한다.<sup>7)</sup>

여기서 우리는 이른바 ‘유사-공포’가 무엇을 뜻하는지 분명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방금 묘사된 찰스의 심리적-생리적 상태는 그것 자체로는 공포를 느끼는 사람이 처한 심리적-생리적 상태와 다를 바 없다. 그러나 살펴봤듯이 찰스에게는 공포의 유발을 위한 적절한 믿음들과 그에 따른 동기부여의 힘이 결여되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것들 없이 찰스의 심리적-생리적 상태만을 놓고 그 상태가 공포라는 진정한 감정의 범주에 속한다고 분류할 수는 없다. 만약 우리가 감정을 느낄 때 처하게 되는 심리적-생리적 상태를 ‘감정적 반응(emotional response)’이라고 부른다면, 찰스가 공포를 느낄 때와 거의 다를 바 없는 감정적 반응을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한 반응이 곧 공포 감정인 것은 아니다. 여기서 중요한

7) Walton (1990), p. 196.

것은 현실 세계의 임박한 재난에 대해서건 영화 속 녹색 괴물에 대해서건 찰스의 감정적 반응은 두 경우 모두 똑같이 그가 실제로 갖게 되는 심리적-생리적 상태라는 점이다. 따라서 ‘유사-공포’라는 용어에 가짜를 뜻하는 ‘유사’라는 수식어 붙는다 하더라도, 이는 찰스의 감정적 반응 자체가 가짜라는 의미가 아니다. 오히려 ‘유사-감정(quasi-emotion)’은 온전하고 적합한 의미에서의 감정을 지칭하는 것이 아닌, 감정의 여러 요소들 중 유관한 믿음들과 동기부여의 힘이 결여된 (허구적) 상황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심리적-생리적 상태만을 지칭하는 용어로 이해되어야 한다.<sup>8)</sup>

## 2.2. 래드포드 퍼즐의 핵심 문제: 개념적 물음에서 인과적 물음으로

월튼에 따르면 우리가 허구의 인물이나 상황에 대해 느끼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유사-감정이다. 그렇다면 월튼의 해결책은 이제 래드포드의 퍼즐을 깔끔하게 해결한 것인가? 보다 구체적으로, 월튼의 해결책은 퍼즐의 무엇을 해결한 것인가? 혹은 김세화는 왜 월튼의 해결책이 불충분하다고 생각하는가? 이 점을 알기 위해 우리는 월튼의 해결책을 활용하여 래드포드의 퍼즐을 재구성해 볼 필요가 있다. 2.1절의 말미에서 강조했다듯이, ‘유사-감정’은 온전한 의미의 감정을 지칭하지 못하고, 감정의 요소들 중 심리적-생리적 상태, 즉 감정적 반응만을 지칭하는 용어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감정적 반응은 그 반응의 대상이 실제 존재하는

8) 내가 보기에는 오종환도 유사-감정과 ‘감정적 반응’에 대해 나와 비슷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 오종환(2002), p. 160. 구체적으로, 오종환이 해석한 월튼에 따르면, “허구적 사건이나 대상에 대한 감정적 반응 또한 허구의 세계에서만 성립하는 감정적 반응이지 실제적인 감정적 반응일 수 없다. 월튼은 이러한 의미에서 허구를 감상할 때 성립하는 감정을 유사-감정이라고 부른다.” 이는 허구에 대한 감정적 반응이 그러한 반응의 주체에게 실제로 느껴지는 반응일 수 없다는 주장이 아니다. 요점은 허구에 대한 감정적 반응이 실제적인 감정적 반응, 즉 진정한 감정에 동반되는 반응과 현상적으로 구분될 수는 없지만, 허구의 세계에서만 성립하는 반응이기에 월튼이 그것을 유사-감정이라고 부른다는 것이다.

대상이건 아니면 허구의 대상이건 간에 반응의 주체가 실제로 경험하는 것이다. 이를 염두에 두고 월튼의 해결책에 따라, 그리고 김세화의 제안에 따라<sup>9)</sup>, <래드포드의 퍼즐>에서 ‘감정’을 ‘감정적 반응’으로 대치하여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 (1\*) 우리는 감정적 반응의 대상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는 경우에만 그것에 대해 감정적 반응을 느낀다.
- (2\*) 우리는 허구의 인물이나 상황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지 않는다.
- (3\*) 우리는 허구의 인물이나 상황에 대해 감정적 반응을 느낀다.

월튼의 해결책에 따르면 월튼은 진술 (3)을 부정하고, 그것이 부정되어야 하는 이유, 즉 우리가 허구의 인물이나 상황에 대해 감정을 느끼는 것이 아닌 이유를 설명함으로써 래드포드의 퍼즐을 완전히 해결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러한 월튼의 해결책을 반영하여 퍼즐을 재구성하게 되면, 월튼은 (1\*)를 부정하는 셈이다. 왜냐하면 월튼은 우리가 허구의 인물이나 상황에 대해 유사-감정일지언정 여전히 감정적 반응을 경험한다고 주장하고, 이는 감정적 반응의 대상이 우리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는 경우만으로 국한되지 않음을 함축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월튼의 해결책을 받아들여도, (1\*)가 부정되는 이유, 즉 ‘실제 존재하는 대상이 아닌 허구를 감상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러한 감정적 반응들을 가지게 되는 것인가?’라는 인과적 물음에 대한 답변을 여전히 필요로 한다. 그러나 월튼은 이러한 물음에 대해 진화심리학적인 사실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추측만을 남길 뿐<sup>10)</sup>, 정작 래드포드가 퍼즐에서 제기하는 핵심적인 물음이 이것임을 인식하지는 못했다는 것이 김세화의 지적이다. 이러한 이유로 김세화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9) 김세화(2002), p. 316.

10) Walton (1990), p. 245, n. 2.

단순하게 허구의 경우에는 우리가 위험에 빠져 있다는 믿음 없이도 quasi-fear를 가진다고 주장하는 것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그것은 이미 문제에 주어져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 현상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를 설명하는 것이다. 월튼이 하듯이 허구를 감상할 때 우리가 경험하는 것의 이름을 진정한 감정에서 허구적 감정으로 바꾸는 것으로는 퍼즐을 해결할 수 없다.<sup>11)</sup>

더 나아가, 래드포드의 입장이 “감정[적 반응]은 인지적 요소를 특히 믿음을 가져야만 그 합리성이 설명될 수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sup>12)</sup>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래드포드 퍼즐의 핵심이 인과적 물음에 있다는 사실은 더욱 분명해진다. 즉, 래드포드에 따르면 허구에 대한 감정적 반응은 그러한 반응에 필수적인 인지적 요소인 믿음이 결여됐으므로 합리적이지 않다. 따라서 래드포드에게 진정한 퍼즐은, 혹은 비합리적인 것으로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만나 카레리나의 운명이나 보바리 부인의 고통, 혹은 머큐시오의 죽음에 대해 [현실의 인간들이 겪는 실제 운명이나 고통, 혹은 죽음에 대한 반응과] 유사한 반응을 가질 수 있는가이다.”<sup>13)</sup> 결국 우리가 허구에 대해 감정적 반응을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한 반응은 단지 비합리적인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래드포드의 퍼즐이 제기하는 근본적인 물음, 즉 인과적 물음에 대한 답변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11) 김세화(2005), p. 164.

12) 오종환(2002), p. 157. 오종환이 래드포드에 관해 설명할 때, ‘감정’과 ‘감정적 반응’은 특별히 구분되지 않고 교환 가능하게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래드포드는 이것을 설명하는 대목에서 ‘감정’이 아닌 ‘[감정적] 반응’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겠다: Radford (1975), p. 78.

13) Radford (1975), p. 69. 김세화(2005), p. 161에서 일부 재인용.

### 2.3. 인과적 물음과 개념적 물음의 관계: 비판적 검토

김세화가 보기에 월튼이 이처럼 인과적 물음에 답변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가 다음과 같은 인지주의 감정 이론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C) 감정이란 본질적으로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믿음(혹은 판단)이다.<sup>14)</sup>

이에 대해 김세화는 (C)를 다음과 같이 수정함으로써 인과적 물음에 답변하면서, 동시에 수정된 인지주의 감정 이론을 제안한다.

(C\*) 감정이란 본질적으로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믿음 혹은 quasi-belief이다.<sup>15)</sup>

그러나 월튼에 대한 김세화의 평가와 수정된 인지주의 제안은 김세화가 주장하는 바, “인과적 물음이 개념적 물음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sup>16)</sup>는 전제가 성립하지 않고서는 정당화될 수 없다. 이 점을 살펴보기 위해 우선 인과적 물음과 개념적 물음을 허구에 한정된 것이 아닌 감정 일반에 대한 물음으로 생각하자.

(Q<sub>causal</sub>) 우리는 어떻게 해서 **감정적 반응**들을 가지게 되는 것인가? 우리의 **감정적 반응**을 일으키는 원인은 무엇인가?

(Q<sub>conceptual</sub>) (진정한) 감정이란 무엇인가? 감정은 본질적으로 무엇으로

---

14) 김세화(2005), p. 167.

15) 김세화(2005), p. 170.

16) 김세화(2005), pp. 166-167.

구성되는가(분석될 수 있는가)?

그렇다면 “감정과 믿음 사이에 논리적인 관계가 있다”<sup>17)</sup>고 주장하는 인지주의자는 (Q<sub>conceptual</sub>)에 대해 (C)라는 답변을 내놓는다고 이해될 수 있다. 김세화의 지적에 따르자면, 이러한 의미에서 인지주의자인 월튼은 허구 감상의 맥락에서 (Q<sub>causal</sub>)이 그 퍼즐의 핵심적인 문제라는 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그 문제에 대해 답변하지 못했기에 그의 해결책은 불충분하다.

그러나 정말로 그러한가? 내가 보기에 월튼은 인과적 물음에 대해 답변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김세화와는 다른 종류의 답변을 하고 있다. 실제로 월튼은 그 자신이 ‘유사-공포’이라고 부르는 감정적 반응의 원인으로, 우리가 허구를 감상하는 경우 그것은, 이를테면 ‘찰스가 허구적으로 위협에 처해 있다는 믿음’이라고 주장한다.<sup>18)</sup> 오히려 월튼이 충분히 답변하지 않은 부분은 ‘바로 그 믿음이 어떻게 이러한 감정적 반응(유사-공포)을 야기하는 원인이 될 수 있는가?’라는 물음에 관해서이다. 한편 김세화는 적절한 상상력을 동원하여 가지는 생각들을 ‘quasi-belief’라고 정의하고, “quasi-belief가 우리 안에 심리적-생리적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인과적 물음에 대한 대답)”<sup>19)</sup>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찰스가 녹색 괴물 영화를 감상하는 경우에는 허구 감상의 맥락에서 적절한 상상력을 동원하여 갖게 된 생각, 즉 ‘그(찰스)가 위협에 처해 있다는 생각’이 그가 경험하는 (공포에 동반되는) 감정적 반응의 원인이다. 하지만 ‘바로 그 생각이 어떻게 이러한 감정적 반응을 야기하는 원인이 될 수 있는가?’라는 물음에 관해서라면 김세화 역시 월튼과 마찬가지로 답변하는 바가 없다. 이 점은 김세화 자신의 논의 속에서 ‘인과적 물음’이 허구의 감상으로 한

17) 김세화(2005), p. 168.

18) Walton (1990), p. 245, n. 2, 김세화(2002), p. 310.

19) 김세화(2005), p. 171.

정된 ( $Q_{\text{causal}}$ ) 이외에 다음의 두 차원을 더 갖는다는 사실로 인해 보다 분명해진다.

( $Q_{\text{causal}}^*$ ) 우리는 어떻게 해서 감정을 가지게 되는 것인가? 우리의 감정을 일으키는 원인은 무엇인가?

( $Q_{\text{causal}}\#$ ) 감정적 반응의 원인이라고 간주되는 것이 우리에게 감정적 반응을 유발하는 일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즉 그러한 원인이 우리에게 심리-생리적 징후로서의 감정적 반응을 유발하는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가?

먼저, ( $Q_{\text{causal}}^*$ )의 차원은 다음과 같은 김세화의 언급에서 발견된다.

감정의 원인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고 주장함으로써, 라 마르크는 일종의 인과적인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가 레드포드 퍼즐의 본질을 제대로 인식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의 대답은 우리의 감정의 원인에 대한 것이지, 우리의 심리적-생리적 반응의 원인, 즉 월튼의 용어로는 quasi-emotion의 원인에 대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sup>20)</sup>

여기서 보듯이 김세화는 감정의 원인을 묻는 질문과 심리-생리적 징후로서의 (또는 유사-감정으로서의) 감정적 반응의 원인을 묻는 질문을 서로 다른 차원의 인과적 물음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므로 김세화가 인과적 물음과 개념적 물음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할 때 그녀는 분명 허구 감상의 맥락에서 ( $Q_{\text{causal}}^*$ )가 아닌 ( $Q_{\text{causal}}$ )에 대한 답변으로 ‘quasi-belief’를 제시하면서 그것이 ( $Q_{\text{conceptual}}$ )과 긴밀한 관계를 갖는다고 말하는 것

20) 김세화(2005), pp. 165-166.

이다. 다음으로, 김세화는 월튼이, 앞서 살펴본 것처럼, ( $Q_{causal}$ )에 답변했음에도 불구하고 (김세화 본인도 답변하지 않고 있는) ( $Q_{causal}\#$ )에 답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월튼이 인과적 물음에 대해 해명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는 명백히 김세화가 ‘인과적 물음’이라는 표현을 ( $Q_{causal}$ )과 ( $Q_{causal}\#$ ) 사이에서 애매하게 사용하는 오류를 범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sup>21)</sup>

이제 김세화가 말하는 인과적 물음과 개념적 물음 사이의 긴밀한 관계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렇게 주장되는 긴밀한 관계가 과연 그럴듯한 것인지 검토하자. 두 물음들 사이의 관계는 허구 감상 맥락에서의 ( $Q_{causal}$ )에 대한 김세화의 답변, 즉 quasi-belief가 허구 감상에서 감정적 반응의 원인이라는 주장으로부터 ( $Q_{conceptual}$ )에 대한 답변, 즉 감정의 본성에 관한 입장을 (C)에서 (C\*)로 수정·제안한다는 사실을 통해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말하자면 “인과적 물음에 대한 대답이 개념적 물음에 대한 대답을 뒷받침해 줄 수 있다”<sup>22)</sup>는 것이다. 그런데 김세화가 주장하는 수정된 인지주의는 “심리적-생리적 반응이 감정의 본질적 부분이 아니라는 우리의 직관을 수용한다는 점에서 ... 다른 이들이 제안한 이론들과 구별된다.”<sup>23)</sup> 즉 김세화는 비인지적 상태는 배제하고 오직 인지적 상태만이 감정의 본성을 구성한다는 “직관”을 전제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감정적 반응의 원인 중 감정이 무엇으로 구성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뒷받침하는 “긴밀한” 관계를 만족하는 것은 오직 믿음이나 quasi-belief 같은 인지적 상태로 국한된다. 그러나 이러한 인지적 상태가 감정적 반응의 원인이라고 해서 그것이 곧 감정의 본성을 구성한다는 설명을 뒷받침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 우리는 감정 이론가들, 특히 아놀드(Arnold) 같은 인지과

21) 내가 보기에 ( $Q_{causal}\#$ )은 사실상 철학자들이 답변해야 하는 문제라기보다 심리학자 혹은 신경생리학자 등 과학자들이 탐구해야 할 주제이다. 월튼이 암시적으로나마 진화론적인 추측을 내놓은 것도 이러한 맥락이라고 생각된다.

22) 김세화(2005), p. 171.

23) 김세화(2005), p. 170, n. 23.

학 및 심리학 계통의 이론가들이 즐겨 사용하는 고든(Gordon)의 ‘일광화상 유비(sunburn analogy)’를 활용하여 이 점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 유비에 따르면 감정은 마치 일광화상과 같다. 일광화상은 태양빛을 그것의 구성요소로 갖지는 않지만, 오직 태양빛에 의해 야기된 그 경우에만 일광화상의 자격을 갖는다. 결국, 태양빛은 단순히 인과적인 선행조건(causal precondition)에 불과한 것이다.<sup>24)</sup> 마찬가지로 김세화가 감정적 반응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 quasi-belief, 그리고 믿음이나 판단 등 인지적 원인들은 감정의 본성을 구성하는 요소가 아닌 인과적 선행조건에 불과할 수 있다.<sup>25)</sup> 김세화는 단순히 (C\*)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 반응의 원인이 믿음(판단) 또는 quasi-belief라는 바로 그 사실이 (C\*)를 뒷받침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므로, 어떻게 그러한 인지적 요소들이 단순히 감정적 반응의 인과적 선행조건이라는 사실 이상으로 감정의 본성을 구성하는 요소가 되어야 하는지부터 밝혀야만 할 것이다.

한편, 어떤 인지주의자는 유사-감정이 진정한 감정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대신 그것이 단지 평행하게 설명되는 감정의 서로 다른 부류들 중 한 가지라는 의미에서 여전히 진정한 감정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sup>26)</sup> 만약

24) Prinz (2004b), p. 17.

25) 일광화상 유비를 말 그대로 따르자면, ‘감정적 반응의 원인이 감정적 반응을 구성하는 요소는 아니다’ 또는 ‘감정의 원인이 감정을 구성하는 요소는 아니다’의 둘 중 하나가 유비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우리는 일광화상 유비를 다음과 같이 재구성할 수 있다: (A) 태양빛은 일광화상과 동반되는 피부 반응의 원인이다. (B) 일광화상은 오직 그것과 동반되는 피부 반응이 태양빛에 의해 야기된 그 경우에만 일광화상으로서의 자격을 갖는다. (C) 그러나 일광화상은 태양빛을 그것의 구성요소로 갖지는 않는다. 이렇게 재구성된 유비를 감정과 관련하여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 (가) quasi-belief, 믿음, 판단 등 인지적 요소들은 감정적 반응의 원인이다. (나) 감정은 오직 감정적 반응이 그러한 인지적 요소들에 의해 야기된 그 경우에만 감정으로서의 자격을 갖는다. (다) 그러나 감정은 그 인지적 요소들을 구성요소로 갖지는 않는다. 이처럼 재구성된 것으로 일광화상 유비를 이해한다면, 김세화의 수정된 인지주의를 비판하기 위해 이 유비를 사용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이러한 주장이 그럴듯하다면, 이는 “우리가 허구에 어떻게 반응하는가라는 문제와 허구 감상에 의해 유발되는 감정에 대한 설명은 독립적”<sup>27)</sup>임을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이다. 이 경우 “인과적 물음이 그 자체로 중요”<sup>28)</sup>하다는 점을 받아들인다 해도, 그것이 왜 개념적인 물음과 긴밀하게 관련되는지 분명치 않아 보인다. 물론 (C\*)가 인과적 물음과 개념적 물음 사이의 긴밀한 관계를 보여준다는 김세화의 주장은 자신의 수정된 인지주의 제안 속에서 제한적으로 성립하는 하나의 관계일 수는 있다. 그러나 이 관계가 다양한 인지주의 이론들, 더 나아가 감정 이론 일반에서 주목해야 할 중요한 관계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이상에서 검토했듯이 래드포드의 퍼즐이 특정한 차원의 인과적 물음을 제기한다는 데에 그 핵심적인 의의가 있다는 사실과는 별개로, 이것을 활용하는 김세화의 두 가지 논점에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 첫째, 월튼의 해결책은 김세화가 주장하는 것처럼 인과적 물음에 답변하지 않거나 그 물음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 아니다. 월튼은 김세화가 주장하는 그러한 차원의 인과적 물음에는 나름의 답변을 제공한다. 오히려 월튼에게 제기된 혐의는 ‘인과적 물음’이라는 표현이 애매하게 사용된 데서 비롯됐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둘째, 김세화가 주장하는 인과적 물음이 개념적 물음을 뒷받침한다는 “긴밀한” 관계는 필연적인 것이 아니다. 나아가 그러한 관계를 수용하는 것이 김세화의 수정된 인지주의 제안에 결코 유리하지 않다. 그 관계는 인지주의자에게조차 필수적이지 않거나 심지어 두 물음들이 독립적이라는 주장까지 가능하다. 그러므로 수정된 인지주의가 인과적 물음과 개념적 물음 사이의 긴밀한 관계를 보

---

26) Gregory Currie (1990), *The Nature of Fic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 211, Gregory Currie (1995), *Image and Mind: Film, Philosophy, and Cognitive Scien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 150.

27) 오종환(2002), p. 160.

28) 김세화(2005), p. 159.

여준다는 주장은 성립하지 않거나 성립한다 해도 필연적이거나 중요한 관계는 아닌 것 같다.

### 3. 레드포드의 퍼즐과 비인지주의 감정 이론

이제 김세화를 비롯한 인지주의자들이 레드포드의 퍼즐을 다룰 때 비인지주의를 배제하는 문제에 관해 살펴보자. 앞서 검토했듯이 월튼은 레드포드의 퍼즐을 해결하기 위해 감정이 무엇인지에 대한 특정한 견해를 전제하고 있다. 이 퍼즐을 제시한 레드포드 자신도 감정에 관해 월튼과 유사한 견해를 갖고 있다. 그 견해에 따르면, 감정을 유발하고 감정을 구성하는 필수적인 요소는 믿음이라는 인지적 요소이다. 물론 이러한 인지주의 감정 이론이 채택된 데에는 나름의 합당한 이유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들은 특히 감정을 느낌이나 감각으로 설명하려는 비인지주의 이론과 대비될 경우 인지주의가 갖는 두드러진 장점들이기도 하다. 구체적으로 말해, 인지주의 감정 이론은 감정의 지향성, 개별화, 그리고 합리성을 설명할 때 비인지주의에 비해 배타적인 설명적 우월성을 갖기에, 허구에 대해 우리가 느끼는 감정(적 반응)을 다룰 때에도 비인지주의 감정 이론은 배제하고 인지주의를 채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 이루어진 비인지주의 감정 이론의 발전을 고려할 때, 인지주의 이론만이 감정의 지향성, 개별화, 합리성 등에 대해 배타적인 설명적 장점을 갖는다는 주장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이어지는 절들에서는 이러한 생각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제시 프린츠(Jesse Prinz)의 이른바 ‘체화된 평가 이론(embodied appraisal theory)’을 개괄함으로써 레드포드의 퍼즐에서 비인지주의 감정 이론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겠다.

### 3.1. 프린츠의 ‘체화된 평가 이론’

여기서 소개할 비인지주의 감정 이론은 프린츠의 ‘체화된 평가 이론’이다. 무엇보다 프린츠는 기존의 고전적인 비인지주의 감정 이론가인 윌리엄 제임스(William James)와 칼 랭(Carl Lange)의 ‘신체적 느낌 이론(somatic feeling theory)’을 계승했다고 자처한다. 그러나 프린츠는 그들을 단순히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이론이 실패하는 지점들을 보완하고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발전시키는 개선된 이론을 제시한다.<sup>29)</sup> 그렇다면 우리는 다음의 두 단계를 거쳐 프린츠의 감정 이론을 살펴볼 수 있겠다. 첫째, 신체적 느낌 이론의 핵심적인 아이디어를 소개하고, 그 이론이 실패하는 지점을 검토한다. 둘째, 체화된 평가 이론이 어떻게 신체적 느낌 이론을 계승·발전시키고, 감정의 지향성, 개별화, 합리성 등을 설명할 수 있는지 보여준다.

#### 3.1.1. 신체적 느낌 이론의 핵심 아이디어와 그 한계

신체적 느낌 이론이 인지주의와 차별화되는 시발점은 감정과 신체적 변화 사이의 선후 관계에 대한 설명에서 나타난다. 인지주의에 따르면, 우리는 감정이 신체적 변화를 가져오지 신체적 변화가 감정을 유발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sup>30)</sup> 이를테면 “우리는 재산을 모두 잃고 슬퍼서 우는 것이고, 곰과 마주치고 두려워서 도망치는 것이며, 적에게 모욕을 당하고 화가 나서 받아치는 것”<sup>31)</sup>이다. 그러나 신체적 느낌 이론을 주장하는 제임스에 따르면,

---

29) Jesse Prinz (2004a), “Embodied Emotions”, *Thinking about Feeling* (ed. by Robert C. Solom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pp. 44-45.

30) 오종환(2002), p. 161.

31) William James (1884), “What Is an Emotion?”, *Mind* 9, p. 190.

이러한 연쇄의 순서는 잘못됐다. 슬픔, 두려움, 화 등은 재산의 상실, 꿈과 마주침, 적에게 모욕당함 등에 의해 곧장 유도되는 것이 아니다. 신체적 변화가 둘 [즉, 사건의 지각과 감정] 사이에 먼저 개입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보다 합리적인 설명은 다음과 같다. 우리는 울기 때문에 슬프고, 맞받아치기 때문에 화가 나고, 떨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다. ... 지각에 곧이어 신체적 변화가 따르지 않는다면, 슬픔, 두려움, 화 등은 흐릿해져 그 색채를 잃고 감정적 온기가 사라진, 순수하게 인식적인 형태가 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꿈을 보고 도망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고, 모욕을 당했을 때는 맞받아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두려움이나 화를 실제로 **느낀(feel)** 수는 없었을 것이다.<sup>32)</sup>

그러므로 제임스는 “자극을 유발하는 사실을 지각했을 때 곧장 따르는 것은 신체적 변화이며, 그러한 신체적 변화가 나타날 때 그것에 대한 우리의 느낌이 바로 감정이다”<sup>33)</sup>라고 주장한다.

이처럼 신체적 느낌 이론의 핵심은 사건의 지각에 곧장 따르는 신체적 변화의 (현상적) 느낌이 감정을 설명하는 데 필수적일 뿐 아니라 충분하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의 논리적 함축은 인지주의자들에 의해 공격의 대상이 되었다. 왜냐하면 이 경우 감정에 관해 설명되어야 할 사실들이 감정과 신체적 변화 사이의 관계로부터 적절하게 도출될 수 없기 때문이다. 먼저, 신체적 느낌 이론은 개별화(individuation)의 문제를 설명하지 못한다. 말하자면, 신체적 느낌만으로는 감정적 상태와 비-감정적 상태를 구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감정의 종류 또한 구별할 수 없다.<sup>34)</sup> 이를테면 누군가에게 어떤 약물이 투입되어 나타난 생리적 변화에 대한 느낌이 슬픔을 느낄 때의 그러한 변화 및 느낌과 매우 유사하다고 해도,

32) James (1884), p. 190.

33) James (1884), pp. 189-190.

34) 오종환(2002), p. 162, 김세화(2005), pp. 168-169, Prinz (2004a), pp. 47-54.

우리는 그 사람이 진정 슬픔이라는 감정을 느낀다고 말하지 않을 것 같다. 더 나아가, 분노와 공포의 신체적 느낌이 같을 경우, 또는 수치심과 당혹감의 심리적-생리적 징후가 다르지 않은 경우, 우리는 그러한 변화에 대한 느낌만으로는 분노와 공포를, 그리고 수치심과 당혹감을 각각 구별할 수 없을 것이다.

다음으로, 신체적 느낌 이론은 감정의 합리성(rationality)을 설명할 수 없다. 즉 신체적 느낌만으로는 감정이 어떻게 어떤 때에는 합당하거나 합리적이고 다른 때에는 합당하지 않거나 비합리적일 수 있는지를 설명하지 못한다.<sup>35)</sup> 만약 철수가 독사를 보고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철수의 두려움이 합당하다고 볼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그 두려움의 합당함은 단지 철수가 느끼는 신체적 변화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다. 철수의 감정이 합당하려면 그 독사가 철수에게 위협하다는 평가가 반드시 있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요컨대 위의 두 문제들은 한 감정이 비-감정적 상태나 다른 감정과 구분될 수 있는 이유, 더 나아가 특정한 대상이나 상황에 대해 바로 그 감정을 느끼는 것이 합당하다고 볼 수 있는 이유가 제시되어야 해결될 것처럼 보이는데, 신체적 느낌 이론은 이 점을 설명하지 못한다. 그런데 이러한 개별화와 합리성의 문제는 사실은 신체적 느낌 이론이 감정의 지향성(intentionality)을 적절하게 설명할 자원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sup>36)</sup> 말하자면, 신체적 느낌 이론의 치명적인 결함은 감정이 지향적 내용(intentional content)을 갖는다는 사실을 설명할 수 없다는 데 있다. 감정은 무언가에 관한(about something) 것이다. 예를 들어, 두

35) 오종환(2002), p. 163, 김세화(2005), p. 169.

36) 오종환과 김세화도 감정의 지향성 문제를 개별화의 문제, 합리성의 문제와 함께 언급하지만, 나는 후자의 문제들이 결국은 지향성의 문제로 귀결된다는 프린츠의 생각에 동의한다. 오종환(2002), pp. 163-164, 김세화(2005), p. 168, Prinz (2004a), p. 54.

려움의 개별적인 에피소드들은 각각 독사에 물릴 가능성, 절벽에서 떨어질 수 있는 상황, 치과 진료 방문, 매우 중요한 시험을 앞둔 상황 등에 관한 것일 수 있다. 신체적 느낌 이론에 의하면 이것들은 모두 “자극을 유발하는 사실”들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들의 지각이 어떤 신체적 변화를 유발하고 그러한 변화에 대한 느낌이 비-감정적인 상태로서의 신체적 느낌이나 다른 감정의 신체적 느낌과 구별되고, 또한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적절하다고 여겨질 수 있으려면, 두려움은 단지 이러한 사실들, 즉 개별적인 구체적 대상(particular object)에 관한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되고, 이것들을 한 데 묶을 수 있는 어떤 공통적인 것에 관한 것이어야 할 것이다. 바로 그 공통적인 내용이 두려움의 지향적 내용, 즉 형식적 대상(formal object)로서의 위협인데, 신체적 느낌 이론은 이러한 의미에서 감정이 무언가에 관한 것이라는 지향성을 설명할 자원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다.

반면에 감정을 유발하고 감정을 구성하는 필수적인 요소는 믿음(판단)이라고 주장하는 인지주의자들은 감정이 무언가에 관한 것이라고 할 때 그 무언가를 감정에 필수적인 믿음의 내용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인지주의에 의하면, 두려움을 느낄 때 나는 내 앞에 독사가 있다는 믿음(구체적 대상을 내용으로 갖는 믿음)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독사가 나에게 위협하다는 평가적 판단(형식적 대상을 내용으로 갖는 믿음)을 형성함으로써 두려움의 지향적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지향성의 문제를 유관한 믿음과 판단이라는 인식적 요소로 설명한다면, 남은 두 가지 문제인 개별화 및 합리성의 문제 또한 마찬가지로 설명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지주의자들은 신체적 느낌 이론으로 대표되는 비인지주의 감정 이론에 비해 자신들의 입장이 배타적인 설명적 우월성을 갖는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만약 인지주의자의 이러한 주장이 옳다면, 래드포드의 퍼즐을 다룰 때 신체적 느낌 이론과 같은 비인지주의 감정 이론은 배제되어야 한다는 주

장 또한 설득력을 얻는 것처럼 보인다.<sup>37)</sup> 그러나 만약 비인지주의 이론이 감정의 지향성을 설명할 수 있게 된다면, 그러한 설명적 자원을 갖는 비인지주의 이론은 인지주의 이론과 마찬가지로 래드포드의 퍼즐을 다루기 위한 감정 이론의 후보가 될 수 있어야 할 것 같다. 그렇다면 이제 ‘체화된 평가 이론’이 신체적 느낌 이론을 계승하면서도 감정의 지향성 문제를 어떻게 설명하는지 검토함으로써, 프린츠의 이론이 래드포드의 퍼즐을 다루기 위한 감정 이론의 후보가 될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자.

### 3.1.2. 체화된 평가와 감정의 지향성 문제

프린츠는 감정이 체화된 평가라고 주장한다. 여기서 감정이 체화된(embodied)는 주장은 신체적 느낌 이론을 계승한 부분이고, 다른 한편 감정이 평가(appraisal)라는 주장은 신체적 느낌 이론을 보완·발전시킨 부분이다. 하지만 감정에 관련된 평가가 판단이나 믿음 같은 인지적 과정의 산물이라고 본 인지주의자들과 달리, 프린츠는 감정에 관련된 평가가 신체적 변화의 지각이라는 비인지적 과정의 산물이라고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두 입장 모두 감정이 평가라는 데에 동의한다고 해도, 인지주의자에게는 그것이 개념적이고 탈체화된(conceptual and disembodied) 것인 반면, 프린츠에게는 여전히 지각적이고 체화된(perceptual and embodied) 것으로 여겨진다.

이제 체화된 평가 이론이 감정의 지향성을 설명할 수 있으려면, 감정의 지향적 내용으로서의 평가가 어떻게 믿음이나 판단과 같은 인지적 과정이 아닌 신체적 변화의 지각을 통해 감정을 구성할 수 있는지를 보여야 한다. 그렇다면 우선 우리는 감정과 관련된 ‘평가’ 개념이 무엇인지부터 파악할 필요가 있다. 앞서 간략하게 언급된 것처럼 감정에 관련된 평

37) 예를 들어, 커리는 윌리엄 제임스의 ‘신체적 느낌 이론’을 갖고 래드포드의 퍼즐에 접근하는 방식을 ‘내용 배제 전략(content exclusion strategy)’이라고 부르고, 이 전략을 논박한다. Currie (1990), pp. 188-190.

가란, 이를테면 슬픔의 경우 재산을 모두 잃음, 부모나 자식의 죽음 등 구체적인 슬픔의 대상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속성을 가리킨다. 슬픔의 경우에는 이러한 공통적인 속성이 상실이며, 감정 이론가들은 이것을 보통 감정의 형식적 대상이라고 부른다. 통상 이렇게 이해되는 평가 개념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리한 대표적인 인물은 라자루스(Richard Lazarus)이다.<sup>38)</sup> 라자루스는 감정의 주체가 외부 세계의 환경 속에서 그 주체의 안녕(well-being)과 관련하여 맺는 관계들, 예컨대 슬픔의 경우 상실, 공포의 경우 위험, 화의 경우 모욕 등을 ‘핵심관련주제(core relational themes)’라고 부름으로써 감정에서의 평가 개념을 정의한다. 다만, 라자루스는 이러한 평가와 평가에 이르는 과정이 판단(judgment)이라는 인지적 요소로 구성된다고 보았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특정한 핵심관련주제, 이를테면 화의 핵심관련주제인 ‘나와 나의 것에 대한 모욕’이 나타나려면, 주어진 환경과 감정 주체인 나의 관계가 나의 목표와 관련되는지(적절하게 관련됨), 그 관계가 나의 목표를 뒷받침하는지 아니면 좌절시키는지(좌절시킴, 즉 목표와의 불일치), 그 관계에서 나의 자기관련성은 어떤 방식으로 결정되는지(자부심, 사회적 평판, 자기정체성), 그 관계 속에서 내가 비난 혹은 칭찬할 대상이 할당되는지(비난할 대상이 있음), 그 관계에 대한 나의 대처 방식은 어떠한지(다양한 형태의 공격), 그러한 대처가 그 관계를 어떻게 변화시킬지(목표와의 일치도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 등등에 대한 판단들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선행 판단들이 조합되어 감정 주체인 나는 누군가가 나와 나의 것을 모욕한다는 인식에 이르게 된다. 그리고 그 결과 나는 ‘화’라는 감정 상태를 경험하는 것이다. 이때 선행 판단들이 조합된 인식은 ‘나와 나의 것에 대한 모욕’이라

38) Richard Lazarus (1991), *Emotion and Adapta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pp. 121-123. 라자루스의 핵심관련주제 개념에 대한 이어지는 설명은 프린츠의 요약을 참고하였다: Jesse Prinz (2004b), *Gut Reactions: A Perceptual Theory of Emo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pp. 14-17.

는 하나의 주제로 요약될 수 있고, 라자루스는 이렇게 요약된 주제를 화와 관련된 평가로서의 핵심관련주제라고 부른다.

프린츠는 라자루스의 핵심관련주제를 감정의 지향적 내용을 구성하는 평가 개념에 적절한 것으로 받아들이면서도, 그러한 평가가 인지적 판단이 아닌 신체적 변화의 지각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프린츠는 감정이 평가라고 말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인지(cognition)<sup>39)</sup>와 무관한 방식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우선 감정이 평가이기 위해서 감정은 기본적으로 심적 표상(mental representation), 즉 무언가를 표상하는 심적 상태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 의미 있는 평가적 내용을 가진다고 표상하는 것이다.<sup>40)</sup> 인지주의자는 이러한 감정의 표상적 내용이 인지적 판단에 의해야기되고 구성된다고 주장하므로, 감정이라는 심적 상태는 의미 있는 개념적 내용을 갖는 상태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프린츠는 심적 표상이 반드시 인지를 요청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즉 우리는 어떠한 개념도 활용하지 않고 의미 있는 심적 상태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프린츠가 보기에 인지주의자는 바로 이러한 가능성을 간과하고 있다. 그렇다면 프린츠는 감정이 그 자체로 표상적 내용을 갖는 비개념적 상태라고 주장하는 것이다.<sup>41)</sup>

39) Prinz (2004b), pp. 45-46. 프린츠에 의하면, 유기체가 작동기억(working memory) 속에서 표상을 활성화시키거나 유지하는 경우 그 표상은 유기체의 통제(organismic control)하에 있는 것이며, 인지적 상태(cognitive state)란 (환경의 통제가 아닌) 유기체의 통제하에 있는 표상들을 이용하는 상태이다. 반대로 지각적 상태(perceptual state)는 유기체의 통제하에 있지 않다. 그러므로 외부 대상이 우리에게 지각적 상태를 유발하는 경우 우리에게 지각된 것(percept)으로서의 표상은 기억 속에 복사되어 저장되었다가 그 대상을 다시 만나거나 다른 계기로 인해 기억에서 활성화될 수 있는데, 이는 바로 그 대상이 우리에게 인지적 상태를 유발하는 경우이며, 이때 우리가 떠올리는 표상은 그 대상에 대한 개념(concept)이다. 프린츠에게 인지와 지각은 유기체의 통제라는 기준에 따라 구분된다.

40) Prinz (2004b), p. 52.

그러나 인지를 요청하지 않는 심적 표상, 즉 의미 있는 표상적 내용을 가지는 비개념적 심적 상태는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가? 프린츠는 이 점을 설명하기 위해 드레츠키(Fred Dretske)의 표상 이론을 도입한다. 이 이론에 따르면, 심적 표상이란 무언가에 의해 신빙성 있게 야기되는 심적 상태이며, 학습이나 진화를 통해 바로 그 무언가를 탐지하는 기능을 갖도록 마련되어 온 것이다.<sup>42)</sup> 이러한 표상 이론을 비인지주의 감정 이론과 접목할 경우, “특정한 신체적 지각은 명시적인 평가적 판단이 표상하는 것과 거의 똑같은 것을 표상하는데, 개념을 사용하거나 기술(description)을 제공함으로써가 아니라 올바른 인과 관계에 참여함으로써 그 일을 한다.”<sup>43)</sup>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감정의 지향성은 감정이 무엇을 표상하는지를 밝힘으로써 설명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경우 감정의 지향적 내용은 곧 그것의 표상적 내용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방금 살펴본 것처럼 프린츠가 도입한 드레츠키의 이론에 따르면, 감정이 심적 표상, 즉 무언가를 표상하는 심적 상태이기 위해서는 (a) 그 무언가에 의해 신빙성 있게 야기되어야 하고, (b) 그 무언가를 탐지하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는 두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그렇다면 ‘감정은 무엇을 표상하는가?’에 대한 답변은 다음의 세 후보로 압축될 수 있다: ① 구체적 대상(사건), ② 신체적 변화, ③ 핵심관련 주제. 왜냐하면 무엇보다 바로 이 세 후보들이 감정이 심적 표상이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프린츠는 세 후보 중에서 오직 핵심관련주제만이 감정의 표상적 내용이라고 주장

41) Jesse Prinz (2007), *The Emotional Construction of Moral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p. 61.

42) Prinz (2004b), p. 54. 여기서 ‘신빙성 있는 인과 관계’는 완벽한 상관관계(perfect correlation)를 함축하는 용어가 아니라,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높은 개연성을 갖고 공변한다는 뜻으로서 오류 가능성, 즉 오표상(misrepresentation)의 가능성을 내포하는 용어이다.

43) Prinz (2004a), p. 57.

한다. 먼저, 구체적 대상(사건)은 특정 감정 상태를 야기하는 원인일 수 있고, 감정이 무언가에 관한(about) 것이라고 할 때 바로 그 무언가에 해당하는 내용일 수 있다. 가령 자식이 죽어서 슬픔을 느끼는 어머니를 생각해 보자. 어머니의 슬픔은 자식의 죽음이라는 구체적 대상(사건)에 의해 야기된 것이며, 그 슬픔은 자식의 죽음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이때 자식의 죽음에 관한 생각과 슬픔은 각각 별개의 심적 표상들로서 결합된 것이지, 슬픔이 자식의 죽음을 표상하는 것은 아니다. 어머니는 자식의 죽음에 대한 생각이 수그러든 이후에도 계속 슬플 수 있고, 반대로 슬픔이 누그러진 후에도 여전히 자식의 죽음에 관해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슬픔은 그것과 우연하게 동반하는 구체적 대상(사건)의 표상과는 독립적으로, 그것 자체의 표상적(지향적) 내용을 가지는 것 같다.<sup>44)</sup>

다음으로, 감정이 신체적 변화를 표상한다는 주장은 신체적 느낌 이론의 지지자들이 할 만한 주장으로 보인다. 프린츠 역시 자신이 이 이론의 계승자라고 자처하기 때문에 신체적 변화가 감정의 신빙성 있는 원인이라는 점에는 동조한다. 그러나 신체적 변화가 감정이라는 심적 상태의 활성화를 신빙성 있게 야기하는 경우, 그 심적 상태, 즉 감정은 신체적 변화를 ‘등록한다(register)’고 표현될 수 있을 뿐,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곧장 감정이 신체적 변화를 표상한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프린츠는 주장한다.<sup>45)</sup> 왜냐하면 신체적 변화가 감정의 표상적 내용이 되기 위해서는 심적 표상의 두 번째 조건, 즉 감정이 그러한 신체적 변화를 탐지하는 기능을 갖는다는 점 또한 만족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조건은 만족되기 어렵다는 것이 프린츠의 생각이다. 물론 감정이 신체적

44) Prinz (2004b), p. 62.

45) Prinz (2004b), p. 58. 참고로, ‘등록하다’와 ‘표상하다’의 차이를 보여주기 위해 프린츠가 드는 유비는 시각 체계의 어떤 상태가 특정한 밝기의 불연속을 등록하지만 [더 나아가, 등록함으로써] 가장자리(edge)라는 형태를 표상하는 경우이다. 즉 특정한 밝기의 불연속이 시각 체계의 어떤 상태의 활성화를 신빙성 있게 야기할 수 있지만, 그 상태가 표상하는 것은 그러한 밝기의 불연속이 아닌 가장자리 형태이다.

변화를 탐지하는 기능을 갖는 것이 진화론적으로 설명된다는 주장이 가능하지만, 가령 언제 나의 혈관이 수축하는지를 아는 일이 왜 그 자체로 나의 생존에 특별히 유용한 것인지는 불분명하다는 점에서, 그러한 진화론적 가설은 이상해 보인다. 게다가 감정이 우리의 행동이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면, 감정이 신체적 변화를 표상한다는 주장은 더욱 설득력이 없는 것 같다. 예컨대 우리는 두려움을 느낄 때 도망치지만, 두려움이 심장 박동을 표상한다는 주장만으로는 도망치는 행동이 왜 나타나는지 설명되지 않는다. 의사결정과 관련해서도, 나의 어떤 행위나 내 혈관을 수축시킬지 아니면 확장시킬지 알지 못한다고 해서, 그러한 무지 때문에 내가 부주의해졌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럴듯하지 않다.<sup>46)</sup>

마지막으로, 감정이 핵심관련주제를 표상한다는 프린츠의 주장을 보자. 이미 살펴봤듯이, 핵심관련주제는 무엇보다 감정 주체인 우리(유기체)와 외부 세계(환경) 사이의 관계를 가리킨다. 심적 표상이 이와 같은 유기체-환경 관계를 표상한다는 주장은 이상하거나 낯선 생각이 아니다. 이를테면 우리는 어떤 대상을 우리 앞에 있는 것으로서 지각하곤 한다. 철수는 어떤 요리를 그에게 맛있는 것이라고 범주화할 수 있다. 당신은 당신 앞에 있는 스테이크가 당신의 입맛을 돋운다는 믿음을 형성할 수 있다. 이 사례들 각각에서 지각적 상태, 개념(범주화), 믿음 등은 모두 유기체-환경 관계에 대한 심적 표상으로 이해될 수 있다.<sup>47)</sup> 그렇다면 감정이 핵심관련주제를 (유기체의 안녕에 중요한) 유기체-환경 관계로서 표상한다는 것은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가? 우선 감정이 핵심관련주제를 표상하려면, 감정은 핵심관련주제에 의해 신빙성 있게 야기되어야 할 것이다. 이미 언급했듯이, 감정의 다양한 구체적 대상(사건)들은 특정 감정 에피소드들 속에서의 원인일 수 있지만 그 구체적 대상 각각을 내용으로 갖는 심적 표상들과 해당 감정은 우연히 조합될 뿐, 감정 자체는 고유의 표상

46) Prinz (2004b), p. 59.

47) Prinz (2004b), p. 60.

적(지향적) 내용을 가지는 것처럼 보인다. 가령 슬픔의 경우를 보자. 슬픔의 구체적 대상들은 자식의 죽음, 중동의 정치적 위기에 대한 보도, 이혼, 해고 등 다양하다. 한편으로 슬픔을 유발하는 각각의 구체적 대상들은 완전히 별개의 사건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공통 주제를 갖는 것 같다. 즉 이러한 사건들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 세계 평화에 대한 희망, 부부 관계, 직업 등 소중한 무언가를 잃는다는 점은 공통적이다. 각각의 경우 상실이라고 요약될 수 있는 이 공통 주제가 우리를 슬픔으로 이끄는 것이다. 그렇다면 상실이라는 공통 주제, 라자루스의 용어로 핵심관련주제가 슬픔을 신빙성 있게 야기한다는 생각은 그럴 듯해 보인다.<sup>48)</sup>

그러나 핵심관련주제가 감정을 신빙성 있게 야기한다는 것만으로는, 앞서 신체적 변화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감정이 핵심관련주제를 ‘등록한다’고 말할 수 있을 뿐이다. 물론 이런 의미에서 감정은 핵심관련주제와 신체적 변화 둘 모두를 등록한다. 즉 둘 모두에 의해 신빙성 있게 야기된다. 그러나 감정이 단순히 핵심관련주제에 의해 신빙성 있게 야기되는 것을 넘어서 그것을 표상할 수 있기 위해서는 다른 하나의 조건, 즉 감정이 핵심관련주제를 탐지하는 기능을 갖는다는 점 또한 만족되어야 한다. 이 조건을 만족하느냐에 관해 핵심관련주제는 우선 신체적 변화의 경우 보다는 더 나은 전망을 가지는 것 같다. 왜냐하면 예컨대 공포가 심장 박동이라는 신체적 변화가 아닌 위험이라는 핵심관련주제를 탐지하는 기능을 가진다고 했을 때 비로소 생존의 이점과 관련된 진화론적 가설이 보다 적절하게 설명될 것이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위험으로부터의 보호, 타인의 도전이나 공격에 대한 대처 등 핵심관련주제를 탐지하는 일이 우리의 필요와 이해관계에 직결된다는 점은 우리에게 어떻게 공포나 화 같은 감정이 마련되었는지 역시 잘 설명해 준다. 그러므로 감정은 신체적 변화와 핵심관련주제 모두에 의해 신빙성 있게 야기되지만, 오직

---

48) Prinz (2004b), pp. 61-62.

핵심관련주제만을 탐지하는 기능을 갖는다.<sup>49)</sup> 요컨대 감정은 핵심관련 주제를 표상하며, 그것을 지향적(표상적) 내용으로 가진다.

이제 프린츠의 주장대로 감정이 핵심관련주제를 표상한다는 점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프린츠의 감정이론은 감정이 체화된 평가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감정이 체화된다는 주장과 감정이 평가라는 주장이 일관적으로 조합될 수 있어야 한다는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말하자면, 우리는 감정이 신체적 변화들(의 패턴들)을 ‘등록한다’는 생각과 감정이 핵심관련주제를 표상한다는 생각이 어떻게 결합되어 체화된 평가라는 하나의 감정 이론이 될 수 있을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보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감정은 신체적 변화의 패턴을 등록(지각)함으로써 핵심관련주제를 표상한다는 주장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알아야 한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프린츠는 이 점을 설명하기 위해 감정이 아닌 우리의 개념이 어떻게 표상하는지, 즉 개념이 어떤 심적 표상인지를 먼저 검토한다. 가령 개 개념(DOG concept)을 보자. 물론, 우리가 가진 개 개념은 개를 표상한다. 그런데 어떤 것이 개이기 위해서는 특정한 게놈(genome, 말하자면 모든 개 그리고 오직 개만이 갖는 유전 정보의 총체)을 생물학적 속성으로서 가져야 한다. 그러한 유전 정보를 갖는 대상은 우리에게 개 개념을 신빙성 있게 야기할 것이다. 보다 정확히 말해, 우리의 개 개념은 그 특정 게놈을 갖는 대상들에 의해 신빙성 있게 야기됨으로써 그 게놈을 표상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개 개념이 개가 갖는(외양적) 특징들을 전혀 기술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따라 나오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개의 유전 정보가 알려지기 전에도 개를 표상할 수 있었다. 즉 우리의 개 개념은 털을 가짐, 꼬리를 흔들, 짖음 등의 명시적인 기술을 통해 개를 표상할 수 있다. 그런데 개의 유전 정보를 가진 대상들은 위와 같은 특징적인 외양을 신빙성 있게 소유하므로, 결국 우리

---

49) Prinz (2004b), pp. 66-67.

의 개 개념은 바로 그 외양적 특징들을 명시적으로 기술함으로써(by explicitly describing) 개의 유전 정보를 표상한다고 말해질 수 있다.<sup>50)</sup>

프린츠는 감정이 앞서 언급된 개 개념의 사례와 유사한 방식으로 표상한다고 생각한다. 프린츠에 의하면, 감정은 핵심관련주제를 표상한다. 또한 감정의 경우 그 특징적인 “외양”은 다름 아닌 신체적 변화의 패턴들이다. 그런데 감정은 신체적 변화의 패턴들을 명시적으로 기술함으로써가 아니라 그것들을 지각함으로써 핵심관련주제를 표상한다. 이런 의미에서 감정은 체화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감정이 신체적 변화의 패턴들을 지각함으로써 핵심관련주제를 표상하기 위해서는 신체적 변화의 패턴들과 핵심관련주제가 각각 감정을 신빙성 있게 야기할 뿐만 아니라, 양자가 신빙성 있게 함께 나타나기도 해야 한다. 프린츠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감정은 핵심관련주제를 표상하므로, 핵심관련주제를 탐지하는 기능을 가진다. 이러한 기능은 우리의 필요와 이해관계에 직결되는 대처 방식으로서의 우리의 반응들을 보다 적절하게 설명해 준다. 이를테면 공포가 위험을 표상한다고 할 때, 공포는 위험을 탐지하는 기능을 가지며, 이는 우리가 위험한 상황에서 도망치거나 얼어붙거나 하는 반응을 잘 설명한다. 그런데 이러한 반응은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동공이 확장되는 등의 특정한 신체적 변화의 패턴에 의해 준비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신체적 변화의 패턴이 위험이라는 핵심관련주제와 신빙성 있게 함께 나타날 때, 공포가 이러한 신체적 변화의 패턴을 지각함으로써 위험을 표상한다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sup>51)</sup>

지금까지 검토한 프린츠의 비인지주의 감정 이론이 그럴듯하다면, 그리하여 체화된 평가로서 이해된 감정이 인지적 과정이 아닌 비인지적 과정을 통해 핵심관련주제를 그 지향적 내용으로 갖는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가진다면, 비인지주의 감정 이론 또한 인지주의 못지않게 감정의 지

50) Prinz (2004b), pp. 67-68.

51) Prinz (2004b), pp. 68-69.

향성, 개별화, 그리고 합리성 등을 설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레드포드의 퍼즐을 다룰 때 많은 인지주의자들의 주장처럼 제임스의 신체적 느낌 이론은 배제할 수 있을지 몰라도, 체화된 평가 이론이 보여주듯이 비인지주의의 감정 이론 자체를 배제하는 전략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것이다.

### 3.2. 레드포드의 퍼즐과 체화된 평가 이론

비인지주의의 감정 이론으로서 프린츠의 체화된 평가 이론이 기존의 인지주의의 감정 이론만큼이나 감정의 지향성 문제를 잘 설명한다는 사실은 레드포드의 퍼즐을 다룰 때 비인지주의를 전적으로 배제해서는 안 될 좋은 이유를 제공한다. 그러나 나는 이것이 이른바 ‘허구적 감정’이 다름 아닌 체화된 평가로서의 감정임을 곧장 의미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는 체화된 평가로서의 감정의 원인이 반드시 지금 여기에 실재하는 어떤 것에 대한 평가여야 하기 때문인 것은 아니다.<sup>52)</sup> 내가 보기에, 만약 허구의 감상이라는 맥락이 일상적인 감정 경험과 허구적 감정 사이에 어떤 중요한 차이를 만든다면, 그것은 감정의 본성에 관한 부분이라기보다는 감정이 우리에게 경험되는 방식에 관한 부분이다. 이런 의미에서 프린츠가 감정이라는 하나의 통일된 개념 아래에 그 하위 범주로서 상태 감정(state emotion)과 태도 감정(attitudinal emotion)을 구분하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된다.

프린츠의 구분에 따르면, 예를 들어 존스가 뱀을 목격하고 난 후 두려움의 상태에 접어든 경우(Jones entered a state of fear after seeing a

52) Prinz (2004b), p. 62. 여기서 프린츠는 미래 사건에 대해 생각함으로써 감정이 야기 되는 경우를 제시하면서 감정을 유발하는 환경적 조건이 실제적 조건뿐 아니라 상상된 조건(imagined conditions)일 수도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물론 이것이 허구적 환경 조건까지를 당연하게 포함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snake)와 뱀에 물릴까봐 무서워한 경우(Jones was afraid that the snake would bite), 존스가 공포 감정을 경험하는 방식은 전자의 경우 상태 감정으로 후자의 경우 태도 감정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구분은 감정이 그것의 구체적 대상(의 표상)과 어떤 식으로 관계 맺는지에 따른 것이다. 말하자면, 구체적 대상으로서 뱀을 본 사건이 공포 상태를 촉발하는 경우, 뱀을 본 경험이 지나간 후에도 여전히 그 공포 상태가 유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그런 식으로 겪게 되는 공포를 마치 그 감정이 자족적인 생명력을 가진(self-contained) 것인 양 말한다는 뜻에서 상태 감정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뱀에 물릴까봐 무서워하는 존스의 경우 그의 공포는 뱀에 물릴 것 같다는 생각이 지나간 후에야 비로소 사라진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겪게 되는 공포에 대해, 뱀에 물릴 것 같다는 생각이 공포 감정과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 말하고, 더 나아가 이때 공포는 뱀에 물릴 것 같다는 생각(또는 그러한 사태)에 대한 일종의 감정적 해석 차원에서 받아들여진다는 점에서 태도 감정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다.<sup>53)</sup>

그렇다면 이러한 구분이 레드포드의 퍼즐과는 어떤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일까? 먼저, 상태 감정과 태도 감정은 구체적 대상에 의해 유발된 체화된 평가로서의 감정이 그것 단독으로 경험되느냐, 즉 비인지적인 지각적 상태로서 경험되느냐, 아니면 그렇게 유발된 체화된 평가로서의 감정이 구체적 대상에 대한 표상과 떼어 수 없는 방식으로 연결되어 형성하는 복합적인 심적 상태의 일부로서 경험되느냐에 따라 구분될 것이다. 그런데 허구적 인물이 처한 상황이나 허구적 사태는, 만약 그것이 감정적 반응을 일으킨다면, 우리로 하여금 후자의 감정 경험, 즉 태도 감정으로서 감정적 경험을 겪게끔 만든다는 생각이 보다 합당해 보인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가 소설이나 영화 같은 허구 작품을 감상할 때 감정적으로 몰

---

53) Prinz (2004b), pp. 179-180.

입하는 방식과 보다 자연스럽게 부합하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우리는 허구를 감상할 때 그것이 전달하는 내러티브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감정적으로 해석하는 가운데 감정적 반응을 보임으로써 허구에 대해 인식적, 감정적으로 몰입하게 된다. 이런 식의 이해가 적절해 보인다면, 이제 비인지주의 감정 이론가들은 비인지적 상태로서의 감정이 허구적 감정이라고 주장하기보다는 좀 더 세련된 방식의 주장, 즉 허구적 감정은 태도 감정이고, 우리는 그것의 일부로서 비인지적 감정 상태(체화된 평가)를 경험한다고 주장해야 할 것이다.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 보자. 이제 프린츠의 비인지주의 감정 이론을 가지고 <레드포드의 퍼즐>을 해결하는 접근 방식은 김세화 등 이른바 ‘수정된 인지주의’ 입장을 가진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진술 (1)을 부정하는 것이다. 즉 우리는 감정의 대상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꼭 믿어야 할 필요는 없다. 그러한 대상에 관한 생각만으로도 감정적 반응은 유발될 수 있다. 다만, 진술 (3)에 대해서는 약간의 해설이 요구된다. 말하자면, 우리는 허구의 인물이나 상황에 대해 감정을 느끼지만, 그러한 감정적 경험은 상태 감정이 아닌 (또는 체화된 평가 단독이 아닌) 태도 감정이라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태도 감정이 의미하는 바, 허구의 인물이나 상황에 대한 감정적 해석으로서의 체화된 평가는 허구의 감상이 유지되는 한, 유관한 허구 내러티브에 대한 표상과 결합되어 복합적인 심적 상태를 형성하는 것이다.

#### 4. 결론

레드포드의 퍼즐이 제기하는 철학적 물음들은 감정의 본성(개념적 물음), 감정의 합리성(규범적 물음), 그리고 감정의 원인(인과적 물음) 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들을 제시한다. 그런데 비교적 최근에 이르기까

지 이 퍼즐을 해결하려는 시도는 대부분 인지주의 감정 이론을 전제하고 퍼즐의 세 진술들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렇기에 퍼즐에 대한 해결책들은 인지주의 진영 내부에서 감정의 본성을 설명하는 서로 다른 이론들이 경쟁하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특히 감정과 인지 사이의 논리적 관계를 지지하는 인지주의자들은 퍼즐에서 제기된 철학적 물음들에 적절하게 답변하고 퍼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감정의 본성을 구성하는 인지가 얼마나 좁게 또는 넓게 해석되어야 하는지 논증하는 데 그 핵심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이 글에서 주목했던 김세화의 논문에서 그녀가 래드포드의 퍼즐로부터 인과적 물음이 근본적임을 읽어 내고, 그 인과적 물음이 다른 물음들, 즉 개념적 물음 및 규범적 물음과 맺는 관계로부터 도출한 결론도 결국 감정의 본성을 설명할 때 인지를 어떻게 규정해야 하는지에 관한 문제였다. 이 글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한 첫 번째 문제는 과연 김세화의 이런 시도가 얼마나 타당하고 적절했는지에 관한 것이었다.

내가 주목했던 또 다른 문제는 김세화를 비롯한 인지주의자들이 왜 래드포드의 퍼즐을 다룰 때 인지주의 이론을 당연한 것으로 전제하는지에 관한 것이었다. 물론 이 문제에 관해서 인지주의자들은 나름의 합당한 이유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비인지주의 감정 이론은 여전히 제임스 식의 신체적 느낌 이론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취급되어, 인지주의 이론에 비해 감정의 중요한 문제들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 이것은 비인지주의 감정 이론의 발전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결과이다. 물론 래드포드의 퍼즐을 해결하기 위해 인지주의와 비인지주의 중 어느 쪽이 더 나은 감정 이론인지를 결정해야 할 필요는 없다. 다만, 비인지주의 이론이 감정의 지향성 등 중요한 문제들을 인지주의만큼 잘 설명할 수 있게 된다면, 최소한 우리는 비인지주의 감정 이론을 래드포드의 퍼즐에 접근하는 전제로서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이러한

생각에서 대표적인 비인지주의 감정 이론으로 이 글에서 소개한 것이 프린츠의 체화된 평가 이론이었다. 앞서 검토한 것처럼 프린츠의 이론은 제임스의 이론을 계승하면서도 고전적인 비인지주의의 최대 약점이었던 감정의 지향성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한 것으로 평가된다. 게다가 내가 보기에 우리가 감정을 경험하는 방식들 중 하나로 프린츠가 제시한 태도 감정은 허구에 대한 우리의 감정적 반응을 설명할 때 적합한 개념이다. 그렇다면 이제 래드포드의 퍼즐을 다룰 때 비인지주의 감정 이론도 나름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논의의 장에서 소외되지 않고 공존할 수 있는 전망을 가지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 참고문헌

- 김세화(2005), 「감정에 대한 인지주의와 그에 대한 수정」, 『철학』 84, 한국철학회, pp. 157-172.
- \_\_\_\_\_ (2002), 「허구에 대한 감정과 래드포드의 퍼즐」, 『철학연구』 57, 철학연구회, pp. 305-319.
- 오종환(2002), 「허구에 의해 환기되는 감정의 합리성 문제」, 『인문논총』 47,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pp. 155-176.
- Currie, Gregory (1995), *Image and Mind: Film, Philosophy, and Cognitive Scien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_\_\_\_\_ (1990), *The Nature of Fic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James, William (1884), “What Is an Emotion?”, *Mind* 9, pp. 188-205.
- Lazarus, Richard (1991), *Emotion and Adapta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Prinz, Jesse (2007), *The Emotional Construction of Moral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_\_\_\_\_ (2004a), “Embodied Emotions”, *Thinking about Feeling* (ed. by Robert C. Solom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pp. 44-58.
- \_\_\_\_\_ (2004b), *Gut Reactions: A Perceptual Theory of Emo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Radford, Colin (1975), “How Can We Be Moved by the Fate of Anna Karenina?” *Proceedings of the Aristotelian Society, Supplementary Volumes* 49, pp. 67-80.
- Walton, Kendall (1990), *Mimesis as Make-Believe: On the Foundations of the Representational Art*,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원고 접수일: 2017년 12월 19일

심사 완료일: 2018년 1월 16일

게재 확정일: 2018년 1월 31일

ABSTRACT

---

The Radford's Puzzle and the Prospect of  
Noncognitive Theories of Emotion

Choi, Kunhong\*

In this paper, I critically examine the claim that Colin Radford's real question in the Radford's puzzle concerning our emotional response to fiction is the causal one, and investigate the prospect of an approach to this puzzle, which adopts a noncognitive theory of emotion. SeaHwa Kim has pointed out that Kendall Walton's account, which treats the puzzle as the conceptual one, is not a satisfactory solution to it, and argued that the real question is the causal one. She has also claimed that the causal question is closely related to the conceptual one, and suggested a revision to the cognitive theory of emotion while construing this as showing, that the answer to the causal question can support the answer to the conceptual question. While finding her insight of great significance that Radford's question is fundamentally the causal one, I demonstrate that Kim's objection to Walton's solution makes a fallacy of ambiguity by using the term 'the causal question' ambiguously. Furthermore, I do not think that the relation between the causal question and the conceptual question is as close as Kim regards it to be, and thereby argue that her revisionary sug-

---

\* Lecturer, Department of Aesthetics, Seoul National University

gestion does not show what it is supposed to do. Finally, considering the recent development of noncognitive theories of emotion, I think that the reasons the cognitivists give for blocking the noncognitive approach to the Radford's puzzle, which include the problems of the individuation, rationality and intentionality of emotions, are not so much compelling any longer. In particular, I introduce as a good example Jesse Prinz's theory of emotion, namely, the embodied appraisal theory, and evaluate the prospect of an attempt to understand our emotional response to fiction in terms of his noncognitive theory.